

바람직한 컴퓨터 활용

김 영 식

(엘렉스컴퓨터 사장)

우리나라 컴퓨터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 흥미로운 자료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을 끄는 것은 신규 수요도 크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보다 고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대체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탓으로 인해 국내의 컴퓨터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세일광고 아니면 신제품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컴퓨터 판매가 이런 단조로운 마케팅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고성능, 신제품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컴퓨터사용자의 유별난 취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는, 일단 신제품이 등장하면 기존의 모든 제품들은 마치 전혀 쓸모가 없는것 처럼 단숨에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물론 멀티미디어와 같이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발맞추어 하드

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컴퓨터 사용자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맹목적인 행동은 컴퓨터를 구입한 본래의 목적을 희석시킨다는 점이다. 단순한 워드프로세서 작업이나 통계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 펜티엄 CPU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혹은 32비트니 64비트니 하는 숫자에 현혹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업그레이드를 결정하기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획일화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획득보다는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그것이 컴퓨터의 노예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를 다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과연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고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지, 혹은 남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만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탈락을 방지해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정보화 마인드가 보다 확산되면 이런 획일적인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루 빨리 펜티엄, 486, 386 혹은 매킨토시와 같은 다양한 컴퓨터가 네트워크상에서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